

# 도내 평준화 고교 배정 공개 추첨

### 선지원·후추첨 방식... 전주 23개 학교 5827명 등 총 39개 학교 9370명 배정 결과 16일 전북고입전형포털 사이트 통해 발표... 19~21일 입학등록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2일 오후 2시 본청 2층 강당에서 2026학년도 평준화 일반고·자율형 공립고 학교배정 공개 추첨을 실시했다.

이날 공개 추첨에는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해 진형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장, 이해은 전북중등교육장협의회장, 언론인 대표, 학생 대표, 학부모 대표 등 6명이 추첨위원으로 참여했다.

전북교육청은 전주, 군산, 익산 평준화지역 일반고·자율형공립고에 합격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지원·후추첨' 방식으로 학교를 배정했다.

배정인원은 전주 23개교 5,827명, 군산 8개교 1,859명, 익산 8개교 1,684명 등 총 39개교 9,370명이다.

학교 배정은 체육특기자, 교육지원대상자, 지체장애인 및 희귀병 질환자, 중증장애인의 자녀 및 형제자매, 다자녀가정 자녀 등을 선배정하고 공개 추첨으로 뽑힌 배정기준 값에 의해 일반배정 대상자를 1지망 지원자부터 정원수(학교별 선배정자 제외)만큼 컴퓨터로 추첨해 이뤄진다.

학교 배정 결과는 오는 16일 오후 2

시 전북고입전형포털 사이트를 통해 발표한다.

입학등록은 오는 19~21일이며, 배정된 고등학교 누리집 통해 학교별 등록 방법을 확인해야 한다.

유정기 권한대행은 "평준화지역 고등학교 배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모든 분께 감사한다"며 "우리 교육청은 평준화 지역 모든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만족하는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원광대 장익황 교수, 미국 네바다 연방의회 특별공로상



원광대학교(총장 박성태) 기계공학부 장익황 교수가 미국 네바다 연방의회로부터 특별공로상을 받았다.

전기차 화재 방지를 위한 배터리 진단 시스템을 개발하는 교원 창업 기업 모니카(MONICA) 대표로 맡고 있는 장익황 교수는 지난 6~9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소비자가전전시회) 2026에 참석해 네바다 주 정부와의 교류·협력 활동을 펼쳤다.



전북대학교 의학과 재활의학교실 김기욱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가상현실(VR) 기반 통증 진단 시스템 'SenseFEEL'이 세계 최대 정보기술(IT)·전자제품 전시회인 CES 2026에서 디지털헬스 부문 혁신상을 수상했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 VR 기반 통증 진단 플랫폼 CES 2026서 경쟁력 입증

#### 전북대 김기욱 교수팀, 혁신상 수상

전북대학교(총장 양요봉) 의학과 재활의학교실 김기욱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가상현실(VR) 기반 통증 진단 시스템 'SenseFEEL'이 세계 최대 정보기술(IT)·전자제품 전시회인 CES 2026에서 디지털헬스 부문 혁신상을 수상했다.

CES는 매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ICT 전시회로,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가 주관하는 혁신상은 기술성, 혁신성, 디자인, 소비자 가치를 종합 평가해 우수 기술과 제품에 수여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이번 성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는 '혁신형미래의료연구센터육성사업(연구책임자 고명환 교수)'의 일환으로 추진된 산·학·병·연 공동연구 결과다.

연구에는 연구에는 전북대 의과대학 재활의학교실(김기욱 교수, 교명환 교수), 전북대 바이오헬스케어공학부(권대규 교수), (주)사이버메딕(정호준 대표), (주)바이오웰리지(최동훈 대표)가 참여해 지역 기반 의료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였다.

수상작인 'SenseFEEL'은 정량감각검사(QST)를 수행하는 QPST100과 3D 가상환경 기반 Pain Care VR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한 차세대 통증 진단 시스템이다.

이 기술은 온도·압력·진동 등 물리적 자극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실제 자극과 동일 자극을 가상환경에서 구현하는 VR 자극을 통해 환자의 감각 반응을 체계적으로 비교·평가할 수 있다.

특히 기존의 말초 감각 자극 중심 평가에서 나아가 동일 자극 조건 하에서 나타나는 통증 인지 차이를 정량적으로 확인함으로써 통증 처리 경로의 변화를 보다 정밀하게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진단적 접근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의과대학 재활의학교실 교명환 교수는 "이번 수상은 혁신형미래의료연구센터가 보유한 디지털 헬스 기술 역량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은 성과라고 밝혔다. 김기욱 교수는 "SenseFEEL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 치료기기 등 다양한 통증 관리 플랫폼을 개발하여 통증으로 고통받는 환자의 원인 규명과 치료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2일 2026년 전북학부모협의회 신년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 도내 학부모들과 새해 전북교육 정책 방향 공유

#### 전북교육청, 전북학부모협의회와 신년 간담회 개최

#### 학부모회 역할 강화 위한 교육정책 협력 확대 등 뜻 모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2일 2026년 전북학부모협의회 신년 간담회를 개최했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과 도내 14개 시군 학부모협의회 대표들이 함께한 이번 간담회는 2026년 전북교육 정책 방향을 안내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학부모 참여 교육의 중

요성에 공감하며, 교육 현안에 대한 학부모 의견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방안과 지역별 학부모회 운영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2026년도 운영 계획도 논의했다. 학부모회의 실질적인 역할 강화를 위해 교육정책 협력 확대, 학부모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추진

에 뜻을 모았다.

김지숙 전북학부모협의회장은 "학부모의 목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단위 학교 학부모회, 14개 시군학부모협의회, 전북학부모협의회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정기 권한대행은 "전북학부모협의회회의의 목소리를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소통의 폭을 넓혀 전북교육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 전북대 김윤수 학생, 5·18 진실 수호 공로 '광주시장상'



전북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김윤수 학생이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을 지키고 왜곡 근절에 기여한 공로로 '광주시장상'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5·18기념재단이 운영하는 우수 참여자에게 수여되었다.

전국에서 150여 명이 참여한 '오월메이트'는 지난 한 해 동안 △외곡시계 제보 및 신고 △5·18사적지 탐방 △5·18 왜곡대응 아이디어 워크숍 △오월메이트 추천도서 읽기 프로젝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수상의 영예를 안은 김윤수 학생은 "최대 왜곡 제보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서포터즈 간 연계 및 홍보 활동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최근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합격한 김윤수 학생은 "오월메이트 활동을 통해 가고자 하는 길을 더욱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다"며 "진실을 밝히고 인권 수호하는 법조인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오월메이트 활동이 5·18 역사 왜곡을 막는 든든한 방패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5·18의 기억을 잇고 그 가치를 미래 세대에 온전하게 전달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

### 국립군산대 교수평의회 의장 선출

#### 간호학부 조혜영 교수... 상임부의장에 심종표 교수



조혜영 교수



심종표 교수

국립군산대학교는 12일 17대 교수평의회 의장에 간호학부 조혜영 교수, 상임부의장에 화학공학과 심종표 교수가 각각 선출했다고 밝혔다.

16대에 이어 17대 교수평의회 의장으로 연임하게 된 조혜영 교수는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가톨릭대에서 보건학 석사 및 간호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국군수요병과 국군철정병원, 국군형병병원 등 전·후방 군 병원에서 간호행정과 내·외과 간호 분야를 담당하는 간호장교로 복무했다.

국립군산대 부임 이후에는 황동인재 교육원 교수학습지원부장 겸 생명윤리 센터장을 역임했으며, 13대와 15대 교수평의회 사무처장 및 상임부의장으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국립군산대 보건·의료안전교육센터장으로서 재학생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보건·의료 및 재난안전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전국국립대학교교수회연합회와 국가중심국립대학교교수회연합회 공동회장으로 활동 중이며, 국립군산대 16대 교수평의회 및 대학평의원회 의장으로서 국공립대학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한 활발한 대외 활동과 함께 대학 발전 및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제언에 힘써 왔다.

상임부의장으로 선출된 심종표 교수는 한양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공업화학 전공으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국립군산대 학생부처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16대 교수평의회 부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전북 지역에너지클러스터 인재양성사업단장과 이차전지부트캠프 인력양성사업단장을 맡아 지역 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군산=김만호기자

### 전북교육청, 제8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공모... 23일까지

#### 전주 3명 등 총 18명 선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재정 운용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편성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제8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공개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운영해오고 있다.

공개 모집 인원은 도내 주민등록 인구수를 고려해 전주 3명, 익산·군산 2명, 그 외의 지역 각 1명씩 총 18명 선발할 예정이다.

모집기간은 오는 13~23일까지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은 전북교육청 누리집(정보공개→주민참여예산제→예산위원회 공모신청)에 접속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예산과(전주시 완산구 흥산로 111)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다만, 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은 예산사업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간주해 참여가 제한된다.

선정 결과는 2월 중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하며, 지역별 위원 후보자로 선정되면 '예산위원회 연수' 과정을 이수해야 예산위원회에 위촉된다. 위촉 기간은 2026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9일까지 2년간이다.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위촉되면 도교육청 각 부서의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상근 예산과장은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는 도민이 교육재정의 주체로서 직접 참여하는 중요한 소통 창구"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책임 있는 교육재정 운영을 위해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기억 전략 등 학생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학생 맞춤형 1:1 학습상담은 전주학력지원센터에서 운영되며, 총 120명의 학생이 학부모와 함께 참여한다. 표준화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 개인의 학습 특성과 학습 전략을 분석하고, 가정과 연계한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

전주교육지원청은 이번 프로그램 운영 결과와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향후 학습코칭 및 학습상담 운영 모델을 지속적으로 보완·확대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 전주교육지원청, 겨울방학 학력신장 프로그램 운영

#### 20일까지... 학교로 찾아가는 학습코칭 캠프 등 제공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채선영)은 겨울방학을 맞아 초등학교 4~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학교로 찾아가는 학습코칭 캠프'와 '학생 맞춤형 1:1 학습상담'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겨울방학 기간을 활용해 학생의 자기주도학습 역량을 강화하고 학습 태도 개선과 학습 자신감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 수요를 반영한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학습유형 검사·코칭·상담을 연계한 맞춤형 학습지원이 특징이다.

학습코칭 캠프는 관내 초등학교 10개교에서 운영되며, 자기주도적 학습, 시간 관리, 교과별 학습 전략 읽기·

감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 수요를 반영한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학습유형 검사·코칭·상담을 연계한 맞춤형 학습지원이 특징이다.

학습코칭 캠프는 관내 초등학교 10개교에서 운영되며, 자기주도적 학습, 시간 관리, 교과별 학습 전략 읽기·

기억 전략 등 학생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학생 맞춤형 1:1 학습상담은 전주학력지원센터에서 운영되며, 총 120명의 학생이 학부모와 함께 참여한다. 표준화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 개인의 학습 특성과 학습 전략을 분석하고, 가정과 연계한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

전주교육지원청은 이번 프로그램 운영 결과와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향후 학습코칭 및 학습상담 운영 모델을 지속적으로 보완·확대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 특수교육대상학생 위한 겨울방학 프로그램 마련

#### 전주교육지원청, 22일까지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채선영)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방학 중 학습 단절을 방지하고,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겨울방학 프로그램은 이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약 2주 동안 △리교실 △

디지털 드로잉 △체육교실 △라탄공예 △코딩교실 △방성스승 등 6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또, 학생과 가족이 함께하는 영화 교실을 운영하고,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겨울방학 프로그램은 이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약 2주 동안 △리교실 △